

감 사 보 고 서

1. 감사개요

산학협력단의 2012년도(2012. 1. 1 ~ 2012. 12. 31) 회계 관련 업무전반에 걸쳐 적절성을 검토하여 산학협력단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감사들은 회계집행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의 설립취지와 사업의 목적에 부합 하도록 간접비의 예산편성·운영내용을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시스템 은 적절한 운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산학협력활동에 대해서는 개선 실적의 도출 여부를 점검하였다.

2. 운영실태

가. 조직 및 업무분장

구분	교원	행정사무관	일반직	기성회직	계약직	합계
인원	2명	1명	4명	3명	9명	19명
구성	단장 부단장	과장	팀장(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7급 1명 8급 2명	팀장 1명 직원 8명	

사무분장의 업무구조를 보면 산학협력단장은 업무전반을 관장하면서 , 산학협력사업의 유치 및 연구과제의 수주 및 관리 등 외부활동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의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을 학내의 연구 및 사업진흥에 환원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산학협력 및 연구진흥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학협력과장은 산학협력단장과 부단장의 정책결정 자문의 역할 및 자금출관납으로써 행정지원을 총괄하며 내부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기타 일반 팀장이하의 직원들은 사무분장에 따라 정기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학협력기획팀, 산학협력사업팀,

연구지원팀, 지식재산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목적달성을 위한 조직체계는 전문적으로 세분화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며, 관련 업무에 대한 유경험자들이 주요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내부적인 행정시스템은 효율적이라 판단이 된다.

직원에 대한 행정운용 시스템을 볼 때 국가공무원 및 학교회계직(기성회직) 대비 자체 계약직 비율(8 : 9)은 계약직이 1명이 많기는 하지만, 전년도에 비하여 공무원 등 정규직이 증원되어 업무안정화가 이루어 졌으며, 계약직원의 경우도 신분 안정화를 거듭하여 2년이 경과한 직원 6명에 대하여 무기 계약으로 전환되어 신분의 안정성이 한층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비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성과보상금체계의 수립, 시간외 수당의 현실화, 복지포인트제도 실시 등에 의하여 정규직원과 상대적 차별성이 있었던 보상적 체계가 구비되었고 기본보수는 산학협력단 자체적으로 공무원 기능10급에서 기능9급 기준으로 변경하여 계약직원 인건비 책정기준을 취업규칙에 반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직원들의 신분의 안정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의 업무증가(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LINC사업,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그린습시험인증센터 사업 등 지속적인 사업증가) 및 추후 감사팀 또는 교육지원팀 운영에 따른 행정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단장 및 운영위원들에게 설명하고 행정인력이 확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전산관리시스템

2010년부터 산학협력단에서 사용중인 회계시스템(더존 - ERP시스템, 신연구지원시스템)에 대하여 각 운영 프로그램별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 현재 사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결산작업 내용의 연동데이터의 정확성 등을 확인한 바, 결산작업의 원활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신속한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추후 신연구지원시스템에 여비 중복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업무의 원활성·효율성 및 신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산학협력단 수익구조

산학협력단의 2011년 대비 2012년 수익구조를 대비하여 점검하면 산학협력 수익이 3,466,600천원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산학협력 수익의 증가는 산학협력 활동이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 만족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산학협력수익은 996,704천원이 지원금수익은 319,659천원, 운영외수익은 41,655천원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수익결산 내역을 보면 우리 대학교의 최대 국가사업인 누리사업이 종료되고 대형 사업이 없었는데 2011년도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사업 등 대형프로젝트를 수주하여 2년차 사업이 진행되었고,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선정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프로젝트 외에 각 사업단 및 교수 개인연구과제등이 증가하여 산학협력수익 및 지원금 수익이 증가된 결과는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산학협력단은 수익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 방향에서 접근하고 이에 따른 결과가 기술이전사업 등 일부에서 도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학협력사업의 운영성과 판단은 수익의 결과로써만 도출되는 것은 아니나 수익의 확대는 산학협력사업의 재정 지원적 측면에서 원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수익창출의 노력은 더욱 신장 되어야 한다.

라. 기술이전 측면

지식재산권의 업무분야는 전문업무분야에 속하며 2009년 특허전문가과전 사업에 선정되어 특허전문가 활용으로 2010년부터 유망 특허 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로 연계시키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 첫해인 2010년 27건 출원 및 15건 등록, 8건의 기술 이전, 2011년 43출원 및 28건 등록, 9건 기술 이전, 2012년 55건 출원 및 29건 등록, 14건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 좋은 성과가 도출되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의 LINC사업 지원에 따른 산학협력 및 연구 활동의 평가지표로서도 지식 재산은 강조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부행정과정의 프로세스는 지식관리업무와 연구지원업무가 별개로 처리되어 있어 교원들의 연구결과물 지식재산화 경향이 2012년 현재까지도 업무의 연계성 측면에서 미약하다. 대학은 가장 풍부한 연구인력을 확

보하고 있으나 연구와 기술을 별개로 취급하는 경향으로 이에 대한 성과산출물이 매우 적어 업무의 개선이 요구된다. 기술 이전 분야는 향후 지식기반사회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 확대되리라 생각이 되며 산학협력의 가장 주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사. 산학협력단 간접비 운영의 측면

산학협력단의 간접비 수입은 2011년도 대비 2012년 1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출은 53%의 증가율을 보였고 적립금은 2,600백만원에서 2,150백만원으로 21%(450백만원)의 감소를 보였다. 수익금 대비 간접비 적립금을 보면 4.9%로 전년도에 비하여 1.5%가 감소하였으며, 산학협력단 자체적으로 자금의 적립을 통하여 자립적 경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학교회계전출금으로 365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3년 연속 등록금 인하와 재학률 하락 등으로 학교회계 수입이 감소되어 감에 따라 간접비의 학교회계전출이 매년 증가 또는 확대될 경우에는 자립기반의 붕괴가 우려된다.

2011년 지출액 대비 2012년 지출액에 대하여 검토하였을 때 산학협력비가 87백만원 증가되었고, 내용을 살펴보면 증가된 항목으로는 기타산학협력비가 78백만원, 지적재산권운영이전비는 40백만원임을 알 수 있다. 기타산학협력비는 각종 사업의 대응자금의 증가와 연구비 선금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지원에 따라 증가되었으며, 지식재산권운영이전비는 특허출원건수가 2011년대비 2012년 12건 증가 등 특허출원료를 납부하면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관리비는 2011년 지출액대비 2012년 67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내용을 보면 대표적인 것은 학교회계전출금이 36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78백만원 증가되었으며, 교직원 보수 인상에 따른 증가가 98백만원, 연구진흥비는 163백만원 등이 증가되었다. 유형자산취득비는 43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지원사업 변전실 덮개 제작 3백만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 사업단 집기비품취득 21백만원, 기술혁신센터 신축공사비 244백만원, 그린습기자재인증센터 신축공사비 169백만원 등 건설중인자산의취득 412백만원 등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1,318백만원 지출의 증가는 학교회계전출금 증가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일환으로 기술혁신센터 및 그린습기자재인증센터 신축 공사가

신규로 지출되었기 때문으로 보며, 나머지 부분은 2012년 지출금액하고 유사하게 지출된 것으로 대부분의 지출내용이 사업 추진에 대한 경비와 교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경비집행에 대한 문제는 양호하고 학교의 경영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매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을 것으로 보지만 2013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에 있어서도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특히 LINC사업 등 산학협력단에서 추진 또는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단순히 산학협력단 사업일 뿐이라는 무관심에서 명백한 학교의 사업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최고경영자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산학협력단 관계자들도 잘 인식하고 있겠지만 사업 추진의 주체는 교원과 산학협력조직이며 재원도 중요하지만 구성원 개개의 의식이 제일 주요한 원동력이므로 이 원동력을 발휘하여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활발하면서 효율적인 산학협력활동을 모색·추진하여야 한다.

3. 결론

2012년도 산학협력단의 감사는 2011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이행여부와 세부적인 회계서류의 검토나 감사는 단기간에 실시하기에 너무 방대하고 사업단별 재원지원 구조 또는 집행지침 등의 다양함으로 이를 지양하고 우리 대학교의 실정에 맞는 산학협력체계의 구성과 변화에 대하여 부응하는 산학협력단의 사업추진내용에 대하여 결산서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전산관리시스템은 복식부기 형태로 운영되는 더존 - ERP시스템과 단식회계로 운영되는 신연구시스템에 대하여 각 운영 프로그램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결산작업 등 연동데이터의 정확성 등은 추가적인 안정화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판단되며, 추후 신연구지원시스템에 여비 중복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기술이전측면에서 판단할 때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가 증가하였지만 산학협력단의 연구지원팀과 지식재산관리팀의 업무적 상호연계성이 다소 미흡함을 볼 수 있다. 이는 각종 연구실적물이 과제수행의 결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지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의 개선과 발전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한 끊임없는 추진과 노력은 경주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수익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2011년 대비 2012년 수익률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내용적 측면에서 2011년에 산학융합지구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 대형 사업을 유치하여 2012년 이후까지 연차사업으로 진행됨과 2012년에는 대형사업으로는 LINC사업과 소형규모 국책사업 및 연구용역등의 수주로 2012년 수익이 3,466백만원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매년 감사시 지적되었던 전체 산학협력단 수익중 지원금 수익으로 단순화 되었던 것이 산학협력단 수익에서도 996백만원 증가하여 눈여겨 볼만한 재정수치로 보여진다.

이제는 11년 및 12년 유치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및 LINC사업 등은 향후 3~4년동안 지속되는 연차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사업의 이행과 관리 또는 평가 등에서 철저한 준비와 지원으로 우수한 실적으로 평가받아 지원금의 삭감 또는 사업의 축소라는 패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 및 관련 사업단 나아가 대학의 전부서가 혼연일체가 되어 정부기관·지자체 및 산업체 등에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산학협력단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지출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산학협력단은 군산대학교의 수익창출과 재원조달의 모체가 되는 기관으로 앞으로 국립대 법인화 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경우에 대비하여 독자적인 수입 창출 모델을 개발하여 대학의 재정에 기여하여야 할 책임 있다고 판단되는데, 2011년은 187백만원, 2012년은 365백만원을 학교회계로 전출하였고 향후, 학교에 계속적인 전출금을 전도하여 산학협력단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산학협력단의 적합한 모델이 될 것 이라고 판단된다. 이외에 2011년 대비 지출내역은 외부의 활동성 및 다양성에 비례하여 약간 상승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에는 LINC사업 2차 연도로 2012년도 참여 학과(부)가 28개에서 8개가 증가하여 36개가 참여하게 됨으로 전체 학과(부) 52개 중 약 70%가 참여함으로 2013년도는 현장실습, 창업교육, 기업지원 등 교원들의 산학연계활동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한 경비 및 행정 지원 등을 활발히 하여 기업과 학교의 산학협력 활동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금년 감사에서 적시되는 사항은 수익구조가 다변화되어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산학협력수익 증가 등 긍정적인 사업성과를 도출하였으나, 여러 분야에서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행정의 효율성 측면의 개선, 관련 업무와 연계된 타부서의 제도적 측면의 개선 등 특히 산학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 재정, 교육, 인사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는 지금까지 산학협력단의 양적인 성장에 기인한 것을 질적인 성장과 함께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좀 더 완성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업무관계자는 산학협력단의 성공적 경영이 우리대학교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의식하에 향후 더 많은 노력과 활동을 요청하며 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

2013. 2. 28.

감 사 군산대학교 화학과 교수 유 수 창 (인)

감 사 공인회계사

김 영 현 (인)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